

妙洞마을 조사 연구(I)

임충신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Report/A Suvey on a Myo-dong Village
by Lim, Choong-Sin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진들이 한국의 전통취락 및 주택 연구에 있어서 초석을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현지조사와 실측작업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으나 실측부분의 작업이 워낙 까다롭고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되어 해석을 충분히 가하지 못했다.

본지에서는 2 회에 나누어 게재하며 1 회는 연구개요와, 인문 환경조사, 마을 조사를 다뤄 보았다.

머 리 에

본 연구의 대상지인 묘골마을은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達成郡 河濱面 妙洞으로서 현재 30여가구가 주로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대구에서 제법 가까운 마을이다. 이마을은 15세기 후반에 順天朴氏들이 入鄕하여 그후 同族部落을 형성해 지금도 주민의 절반이상이 순천박씨로 이루어져있다. 묘골은 桐谷과 倭館을 잇는 지방도상에서 약 1km거리의 진입로를 통하여 동네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도로부터는 굽어진 골짜기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므로 마을이 보이지 않아 아늑하고 피난에 알맞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같은 행정부락에 속하는 마을로 道菜와 坡回가 있다. 도채는 국도쪽에서 볼때 묘골보다 더 깊숙히 자리하였고 파회는 지방도에서 더 가까와 바로 이 마을을 볼 수 있다. 파회는 묘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묘골에서 이주한 박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묘골마을은 조선초기 死六臣의 한분인 忠正公 朴彭年의 遺服孫인 朴臺珊이 개척한 마을로서 그후 박씨일가가 번성하여 6.25전까지도 他姓을 합하여 100여호의 가옥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30여호에 지나지 않고 인구도 차차 줄어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마을에서는 조선시대에 많은 學子, 官吏가 배출되었으나 지금은 옛날의 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한식 기와집들이 몇채 남은 정도이다. 또한 마을을 지키는 이들도 임차농이나 영세농이 대부분이다. 본연구의 대상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당초에 설정된 몇가지 조건은 첫째 전통주택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을 것, 둘째 독립된 취락으로서 군집되어 있을 것, 셋째 거리상이나 규모상, 경비상으로 장기 조사에 적합할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경남 및 경북의 3개 마을(칠곡군 왜관읍 매원, 산청군 단계리, 묘동)에 대한 예비답사를 행한 결과 본 대상지인 묘동이 위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묘동은 사육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연결되어 거주인의 맥락이 끊기지 않고, 마을 공간구조로 볼 때 축과 위계가 분명하며 반상의 위계질서에 대한 장소적 구별이 뚜렷한 점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취락 및 주택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진들의 계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실측조사에 있어서 본 대학 학생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조사의 첫단계로부터 마무리까지 묘동 마을 박도덕씨의 헌신적인 도움을 잇을 수 없다.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계속되어 온 한국의 전통건축연구의 한줄기를 이어받은 것으로 의인.섭마을(1976), 남사(1983)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두개의 조사보고서는 한국건축연구에 있어 전통취락 및 주택의 자료축적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도 그러한 맥락에서 행해졌지만 약간의 방향전환을 꾀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앞선 두 조사보고서가 건축도면의 충실한 작성이라는 데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금번의 조사연구에서는 도면은 도면대로 충실히

작성하되 解析作業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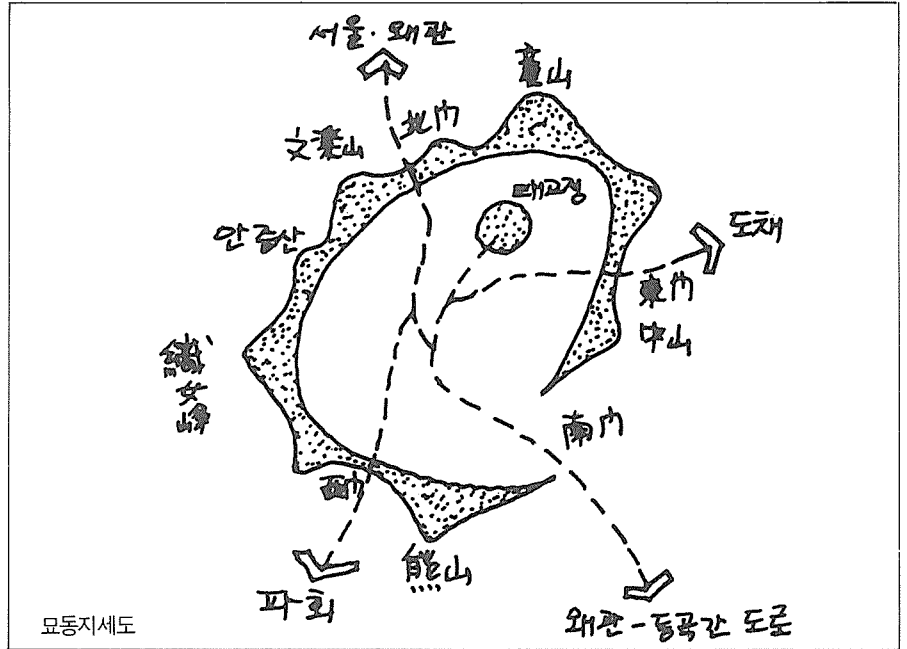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운용될 수 있으나 가장 평범하게 들 수 있는것이 대상에 대한 실측과 이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측의 경우 경비와 시간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비와 시간이 모처럼 허락되어 실측작업이 가능할 경우에도 차후의 해석에 대한 고려가 없는 채로 실측을 행하면 실측된 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민가 평면 채집의 경우 가옥의 평면, 입면을 아주 정확하게 도면화 하였으나 방의 명칭을 조사자의 자의대로 호칭하여 기입하였다면 후의 해석단계에서 민속분류 (Folk Taxonomy)에 의한 연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가 이상적이기로는 실측과 해석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점을 특히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의 해석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됨에 따라 의미가 적은 도면이나 數值가 대폭 생략되었으며, 현장에서의 해석을 서술형식으로 도면과 함께 실게 되었다. 각 주거의 평면도도 종전의 도각중심에서 각 세대 중심으로 바뀌게되었다.

물론 해석의 궁극적인 모습은 건축론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실측부분의 작업이 워낙 까다롭고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되어 해석을 충분히 가하지 못한 점이 있다.

연구는 크게 나누어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측 및 해석작업(마을조사)이며, 둘째는 인문환경에 대한 記述作業이다. 마을조사에서는 마을의 배치도·각 세대별 평면도 등을 도면화하고 해석을 가했고 마을 안이나 주변의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입면과 단면도에 대한 조사를 보완했다.

1. 조사방법



● 예비답사

1985년 6월 24일 연구원 2인이 이들에 걸쳐, 대구시내에 있는 달성군청과 縣內里에 있는 하빈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측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여, 「달성군 전통가꾸기」 책자의 복사, 현지의 지적도 복사 등의 협조를 받았다.

또한 마을을 면밀히 답사하고, 동장, 마을유지 등을 만나 성씨분포, 마을연혁 등 마을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제반 인문 환경을 조사하고 85년 7월초에 시작되는 현지 실측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妙洞의 행정구역상 범위는 묘골, 道菜, 坡回에 걸쳐 있으나 실측의 주대상은 묘골로 한정하기로 하고, 인문환경조사에는 묘골을 중심으로 하되 지리적 한계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 실측조사

1985년 6월 26, 27 양일에 걸쳐 실측 참가 학생들은 실측방법을 연습했다. 6월 29, 30 양일 동안 측량사 1인과 보조인 3인이 동원되어, 현지에서 평판측량으로 마을 배치 평면도를 축척 1/600로 작성하였다.

7월 1일에서 5일까지 5일간 실측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아서 조사방법 교육, 실측에 대한 실습, 측량도면의

확대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측량도면은 1/100로 확대하여 집의 위치만 나타난 도면에 현지에서 건물의 평면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8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7박 8일동안 교수 3인, 학생 22인 (건축학과 21, 가정학과 1)이 현지의 崇節堂과 박형기씨 댁에 숙식하면서 실측 및 인문 환경조사를 행하였다. 일반적인 건물들은 배치 평면도만 축척 1/100 연필제도로 작성하였고, 중요건물들은 입면도와 단면도를 축척 1/50로 작성했다. 건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먼저 현장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축척을 고려하지않아도 되었고, 2인이 칫수의 실측을 하는 동안 1인이 스케치에 칫수를 기입하게 되므로 보통의 실측조는 3인으로 구성되었다.

● 도면화 작업 및 보완조사

현지에서 실측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자료를 토대로 1985년 8월 건축학과 설계실에서 당시 3학년 학생 10인과 연구원 3인이, 마을배치도·도각평면도·세대별 평면도 등의 인쇄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1985년에 행한 작업만으로는 중요건물에 대한 건축도면이 미비되었으므로 1986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연구원 3인과 학생 5인이 다시 현지에서 보완조사를 행하였다.

이 보완조사에서는 중요건물의 평면도, 입단면도들의 실측과 이들의 도면화 등이 주요 작업이었지만 아울러 이미 이루어진 도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수정, 사진촬영, 인문환경에 대한 보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인문환경조사

인문환경에 대한 조사는 묘골마을의 역사적배경, 지리적환경, 공간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진 조사를 말하며, 현지에서의 관찰, 주민에 대한 인터뷰, 각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문헌에 의한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관찰, 인터뷰, 설문조사는 실측 기간동안 현지에서 소수의 인원이 시행했고, 문헌조사는 「順天朴氏忠正公派世譜1권」과 「달성군내고장 전통가꾸기」를 중심문헌으로 하여 주로 연구실에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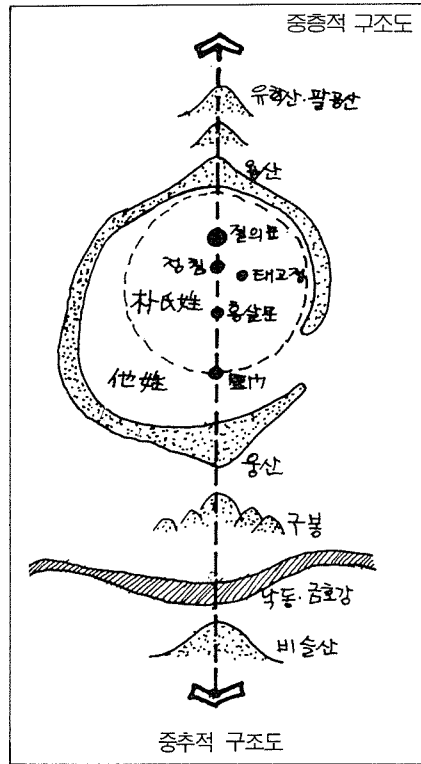
인문환경은 마을沿革, 地勢와 形局, 住民, 習俗, 마을의 空間構造, 주요장소, 중요건물, 중요한 물의 8개 항목으로 기술하였는데 실측으로 나타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되었으나 문화인류학의 여러 관찰·기술방법을 도입해 문화의 일반적 서술을 시도했다.

2. 인문 환경조사

● 마을의 연혁

妙洞은 대구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 20km, 현재의 대구시 경계에서는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농촌마을로서 達城郡 河濱面에 속해 있다.

달성이라는 이름은 達句伐의 들불성(達弗城)에서 생겼다고 하며 이성에 있던 지역은 현재 대구직할시의 달성공원 근처였다. 따라서 현재의 달성군은 달성이라는 이름의 연원지를 대구에 빼앗기고 대구시의 서남쪽 주변부와 경계를 이루며 대도시의 주변지역으로 머물게 됨에 따라



경계와 문화를 대구시에 의존하고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배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빈면의 河濱은 요순시절 舜임금이 도자기를 굽던 중국의 지명과도 같은데 신라 경덕왕때 壽昌郡의 領縣으로 있던 하빈현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面의 소재지는 현내리로서 묘골에서 4km 동쪽에 있는데 縣內라는 이름은 현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1830년경 이루어진 達城·大邱古圖를 보면(고지도도 참조) 그 당시에 하빈이 河東, 河西, 河南, 河北의 4개 方面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빈현은 본래 多斯只縣(또는 畓只)에서 신라 경덕왕때 개명되었다고 하며, 이때 하빈현은 壽城郡에 속하여 있었다. 고려때에 경산부 관내로 내속되었다가 대구에 이속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일제 침략 후 식민정책 수행의 일환인 1913년의 총독부령으로 도의 관찰 구역을 조정하여 대체로 지금의 명칭과 규모로 정해졌는데 하빈현의 경우 현내리에 중심을 두고 하동, 하서, 하남, 하북을 합하여 하빈면을 이루었다. 이때 하빈면은 달성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대구는 축소되어 府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후 대구시의 팽창에 의한 주변지역 흡수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나 하빈면까지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묘골은 동네의 입지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묘한 형국으로 이루어졌다하여 妙洞이라 하였는데 儒學인들이 유교적 관념에서 女를 立으로 고쳐 妙洞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처음 이루어지게 된 것은 1470~80년 경인데 入鄉祖는 順天 朴一珊이라고 한다. 그는 忠正公 박팽년의 遺服孫으로서 근처에서 태어난 후 묘골에 맨처음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후 이 마을은 충신과 학자들이 배출되는 유서있는 양반 동족마을로

발전되었으며, 임진왜란때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입어, 현재 마을의 골격은 그후에 이루어졌다.

● 地勢와 形局

묘골의 형국은 소위 回龍顧尾形이라고 하는데(朴氏世譜1권 p. 44) 龍山이라 불리우는 낮으면서 산이 묘골 주위를 등글게 싸고있어 용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골짜기에 의해 떨어지되 서로 마주보는 모양에서 이렇게 불리운 듯하다. (묘동지세도 참조)

현재 마을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을 풍수에 대한 개념은 매우 빈약하며 순천박씨세보에서나마 그 편린을 엿볼수 있다.

이 마을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주한 박노만씨에 의하면 묘골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며 풍수상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한다. 즉 八公山에서 뻗은 맥이 칠곡의 架山, 仁同의 遊鶴山 등을 거쳐 龍山을 이루는

文樂山, 織女峰, 熊山등으로 이어져 내려와 묘골에서 明堂을 이루는데 이때 주변의 산들이 모두 묘골을 따르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¹⁾.

世譜의 事實, 古蹟, 碑誌行狀의 기사들에서는 忠正公派의 본거지인 묘골과 파회에 대하여 박씨 가문의 명당으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글을 써 준 외부인들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²⁾. 현재 崇正祠³⁾를 포함한 주변의 대지에는 지금의 숭절당 자리까지

포함하여 99間的 宗宅이 있었다고 하는데 太古亭은 그 저택에 딸린 정자였다고 한다. (세보 p.37 太古亭記 참조) 이 집에서 살던 大宗家は 18세기 말경 領北(충주부근)으로 이주함에 따라 일가들이 그후 그터에 여러집을 짓고 살아오다가 1971년에 시작된 정화사업에 의해 집들이 헐리게 되었다,

● 주 민

묘골의 주된 성씨는 順天朴氏이다. 순천박씨는 최초의 입향조 박일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0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며, 터가 좁아 파회로 분가하기도 하였다. 많을 때에는 마을전체 가구수가 100여 가구에 달할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1985년 8월 현재 박씨만 19가구, 전체 가구수는 34가구이다.

따라서 아직도 동족부락의 면모가 남아 있어서 박씨가 他姓보다 의사결정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입향조 박일산은 박팽년의 손자이자 그 아들 朴珣의 유복자이다. 1456년 6월 丙子之禍로 박팽년을 포함한 死六臣과 박씨의 온가족이 화를 당하여 죽고 귀양갈 때 박팽년의 子婦인

李氏(성주)는 임신중이었는데 숨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가 朴婢였다. 16세 되던 해에 성종임금에게 자수하여 사함을 받아 이름을 박일산으로 고치고, 묘골에 瓶基하였는데 그때가 1480년경으로 추측된다.

그후 99間이 되는 큰 저택을 짓고 차차 자송이 번성함에 따라 묘골은 박씨의 동족부락으로 발전 하였으며, 韓末當時에는 300여 호의 가옥이 있었다고도 하나⁴⁾ 1945년까지 약 100호가 있었고 지금은 퇴락, 철거 등으로 30여호의 작은 마을로 변하였다.

이 마을에서 타성의 위치는 박씨에 대해 보조적, 주변적 지위를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여타 동족부락의 경우와 유사하다⁵⁾.

● 습 속

묘골의 전통적 행사나 풍습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빼고는 거의 다 퇴화되었다. 정월 대보름에 묘골과

파회간에 줄다리기 습속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며, 예전에 성행하던 굿도 거의 행하지 않는다. 영조때 세워진 三忠閣 때문에 堂祭, 洞祭, 巫俗등이 미신시되어 삼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사는 빈도가 잦으며 순천 박씨 전체의 묘사(時祭)가 음력 10월 13일에 있는데 가문 중에서 번갈아가며 有司를 맡는다. 그 중 육신에 대한 제사는 春秋로 일자를 지정하여 현창회에서 지내는데 유림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환란시에 돕기 위한 계가 몇개 있어 그 중 하나가 喪主집에 불을 켜주는 호롱계이다.

부녀자들중 불교 신자가 일부 있고 한얼교신자도 몇명 있으나 기독교신자는 없다고 한다.

새로운 조직으로 청소년회, 부녀회 등이 생겼으나 반상회가 열리고 86년 여름의 경우 현지에서 관찰한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동장이 확성기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 사항과 협조 요청 사항을 알리고 있었다. 추석때 쪼에 열리는 국민학교 운동회는 어른들도 참석하는 흥겨운 행사가 된다고 한다.

● 마을의 공간구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묘골은 지방도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3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쌓인 아주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제법 완결된 공간감을 준다. 피난지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지세는 외부에서 마을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며 내부에서도 둘러싼 용산의 줄기때문에 바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유교의 위계 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확립되었던 묘골의 공간 질서는 유교문화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고한 새 문화가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공간 질서도 흐트러졌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마을이 유교문화 속에서 번성하던 때의 공간 질서를 상정하여 해석해 보았다.

현재 마을에 진입할 때의 시각적 의미적 중심은 승정사 건물이나 원래는 99間宗宅, 태고정, 六臣節義墓(祠堂)등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다른 전통마을이나 풍수지리설의 명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묘골에서도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의 층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층은 활처럼 휘어져 남북을 관통하는 軸上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층의 위계는 남에서 북으로, 지형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장소가 전개되며 박씨성의 집들은 마을의 윗쪽을 차지하였고 타성의 집들은 아랫쪽에 위치한다.

위계상 최상위의 중심은 宗家の 正寢이 되는데 몇개의 층을 중심의 축을 따라 연결하면 里門-紅箭門-宗宅-節義墓의 순서가 된다.

정침 이외의 중심은 절의묘와 태고정이다. 절의묘는 유림에게 忠과 學의 中心을 상징하며, 태고정은 선비들이 詩作, 閑談, 공부를 하는 장소로서 주변경치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비교적 질서가 잡힌 小世界는 더 큰 질서의 일부가 된다. 뒷쪽의 용산을 거쳐 유학산, 팔공산으로 맥이 연결되고, 앞쪽으로는 곰삿골과 九峰으로 연결된후 洛東江, 琴浩江을 건너 달성의 최고봉인 琵琶山으로 이어진다. (마을 중심을 둘러싼 층구조도 참조)

원래 이 마을은 가장 높은곳에 위치한 宗家로부터 세 아들이 分家하여 첫째, 둘째, 셋째아들 순으로 東岸, 中岸, 西岸의 영역을 이루며 宗家밑의 세 부분을 평행하게 구성하였다고 한다. 복원배치도상에서 상정되는 바와 같이 규모로도 가장 큰 東岸과 점차 작아지는 中岸, 西岸은마치 아버지 밑에 앉은 형제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는 東岸만이 옛모습을 어느정도 보존하고 있을뿐 서안은 이미 쇠락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다만 동안과 중안 사이의 통로가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소집단으로 군집돼 있는 아랫마을은 본시 윗마을 박씨가문의 입차농이나 사역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는 타지에서 들어온 타성반이들이 소작이나 작은 농사를

경영하고 있다.

비록 흔적으로 남겨졌지만 이 마을의 공간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결부시켜 볼 때 조선시대 신분구조의 의인화처럼 배치의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묘골은 하나의 城으로서 파악되어 4대문을 비정하기도 한다. 東門은 도채로 나가는 길, 西門은 파회로 나가는 길, 南門은 현재의 지방도에서의 진입로, 北門은 뒷산을 넘는 길로 각각 도채재, 파회재, 북의 문악재를 일컫는다.

● 주요장소

文樂재(무네기 고개) : 과거에 급제 하였을 때 풍악을 울리며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며 마을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소로중에 있다. (묘동지세도 참조)

龍山 : 묘골의 주산으로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C字形의 산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승정사 뒷 부분의 봉우리만을 일컬을 때도 있다. 전체를 말할 때 그 안에는 中山, 문악산, 안중산, 직녀봉, 웅산 등의 봉우리들을 포함한다.

宗宅터 : 현재 승정사, 태고정, 승절당 등이 차지한 일곽에 99간 종택이 있었는데 평면이 興字를 닮았다고 하며 각각의 획에 따른 건물명칭이 태고정기에 적혀있다. (세보 p. 37)

織女峰과 베틀바위 : 전설에 의하면 직녀가 남편이 과거보러 간 사이에 남편을 기다리며 베를 짰는데 이 베틀바위에 베틀을 올려 놓았다고 한다.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참조)

아들바위 : 하빈고개를 넘는 길목에 있는 바위로 아들바위 또는 장군바위로 불리운다. 임진왜란 때 明의 장군 이 여송이 전국을 다니면서 인물이날 지맥을 끊어버리던 중 이곳에 왔는데, 바위에 의해 큰 장수가 날 것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붓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렸다 한다⁷⁾.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참조)

九峰 : 하빈고개에서 남쪽의 霞山里까지 낙동강변에 뻗어 있는 산을 말하며 봉우리가 아홉이라 하여 이러한 이름을 가졌다.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참조) 武夷九曲形과 흡사하다고 한다. (대구, 달성지) 洛東江 : 묘골의 서쪽에 있다. 시각적으로는 묘골에서 보이지 않으나 定位上 중요한 요소이다. 강줄기가 동서로 이동하는데 하빈쪽으로 흐를때 박씨가에서 정승이 난다는 口傳이 있다.

琴湖江 : 대구로 나가는 길에 건너게 되는 낙동강의 지류로서 지리적 정위상 중요한 요소이다.

錦西간은 금호강의 서쪽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며, 하빈을 다른 이름으로 금호 또는 錦水라고도 한다.

八公山 · 遊鶴山 · ● 瑟山 : 팔공산은 대구 · 달성의 鎭山이며, 마을뒤의 용산의 맥이 유학산을 거쳐 祖山인 팔공산에 연결된다. 비슬산은 묘골과 구봉을 통해 연결되는데 풍수상의 朝山에 해당된다.

● 중요건물

崇正祠 : 1974년 신축된 콘크리트조 한옥형 건물로 종가택 터에 세워졌으며 현재 이 마을의 시각적 의미적 중심을 이룬다.

太古亭 : 99간 종택에 속하여 같이 지어졌던 정자로서 임진왜란때에 사당만 남기고 집과 정자가 회진되었다고 한다. 같은 터에 현재의 정자를 짓고 新亭으로 부르다가 朴崇古때 太古亭으로 불렀다고 한다. (세보 p. 37)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陶谷齋 : 충정공의 14대손 서정공 朴文鉉(1978-1858)의 弟宅이었으나 지금 건물은 19세기 중엽의 것이다. 1800년대에 서정공의 傍祖인 忠正公 6대손 도곡(朴宗祐)의 재사로 지정됨. 지방 유형문화재 제49호(74. 12. 10지정). 1980년 달성군에서 보수하였다. (전통가꾸기 p. 428)

追慕齋 : 1983년 西岸(또는 서편이라고도 함)의 방조인 朴崇煥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세보 p. 41)

三忠閣 : 박팽년과 子 및 孫의 3대에 걸친 충성을 표창하기 위하여 1775년(영조 51년) 정려된 건물로 마을의 어귀에 있다. 1832년에 記實碑를 세웠다. (세보 p. 54)

洛濱書院 : 사육신을 모시던 서원인데 지금 건물은 1924년에 지어졌다. 낙빈서원 이전에는 하빈사를 세워 봉사하다가 1691년에 별묘로서 서원을 지었고 1964년에는 숙종 친필로 쓴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1866년(고종 3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됐다. 1924년 유림에서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낙빈이라 명하였다. 1960년에 보수하였다.

三可軒 및 荷葉亭 : 파회에 있는 朴秉圭氏家의 사랑채와 별당채를 말한다. 삼가현은 원래 초가이던 것을 1826년(순조 26년)에 지금 건물로 지었다. 하엽정은 1874년(고종 11년), 안채는 1869년, 대문체는 1911년 지금과 같이 중건되었다고 한다.

묘골에서 파회로 이사오게 된 것은 삼가현 朴聖洙공이 차남인 光錫을 分家시킨 데에 연유하며 집의 모양을 사돈집인 밀양의 孫兵使宅에서 따왔다고 한다.

錦西軒 : 1664년 충정공 8대손 박중미가 건립하였는데 1909년 금서현 朴光輔공의 재사로 지정되었다. 현재 건물 한채만이 남아 있다.

霞蔦亭 : 하빈명 하산리의 낙동강변에 위치한 정자로서(위치도 참조) 1604년(선조 37년) 낙포 이종문 현감이 창건하였다. 평면이 T字形으로서 지금의 건물은 그후 중건된 듯 하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도면 참조)

● 중요인물

朴彭年 : 1417~1456, 충신, 자는 仁叟, 호는 醉琴軒, 시호는 忠正. 본관 順天이다. 세조가 완위를 찬탈하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四六臣의 한사람으로 후에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으며 낙빈서원에 향사되었다. 묘골에서 살지는 않았으며 순천박씨 충정공파의 시조이다.

朴仲林 · 朴珣 : 중림은 충정공의 부친으로 대사헌, 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아들과 함께 단종을 복위시 키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호는 閑碩堂, 시호는 文愍이다. 순은 충정공의 아들로 같은 사건으로 처형되었다.

朴壹珊 : 단종 복위기도가 실패함에 따라 박 중림, 박 팽년, 박 순이

몰사되었는데 이때 박 순의 처 이씨는 유복자를 가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명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連坐하여 그 아들을 죽이게 하고 딸이면 관비로 삼으라”고 하였다.

마침 그집의 종이 또한 임신중이었는데 “주인이 딸을 낳으면 다행이요, 비록 나와 함께 아들을 낳더라도 종이 낳은 것을 대신 죽게 하리라”고 하였다 한다. 해산을 하여 아들이었는데 같은 날 좋은 딸을 낳게 되어 둘은 아이를 바꾸어 기르고 朴婢라 이름하였다.

성종때 박 순의 同嬪인 議政 李克均이 경상감사로 와서 박 비를 불러 만나보고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미 장성하였는데 어찌 자수하지 않고 끝내 조정에 숨기는가?”하였다. 이에 박 비가 한양에 가서 자수하니 임금에 특별히 명하여 용서하였고 후에 이름을 고쳐 일산이라 하였다.

일산의 外祖父 李鐵根은 일산의 모친 이씨 외에는 자녀가 없어 3만석지기 땅과 재산을 일산에게 물려주게 되었는데, 박 일산은 후에 묘골로 이주하니 묘골의 入鄕祖가 된다.

朴忠後 : 1552~1611,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많은 적을 무찌른 공으로 原從勳에 녹훈되었다.

五衛都總府副總管을 지냈고 동생인 忠乳, 忠緒도 왜군과 싸움.

朴宗祐 : 1587~1654. 호는 陶谷 또는 河濱鈞 로 寒岡 鄭述의 門下에서 배움. 문장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르기로 이름이 있었다. 達城의 十賢中 1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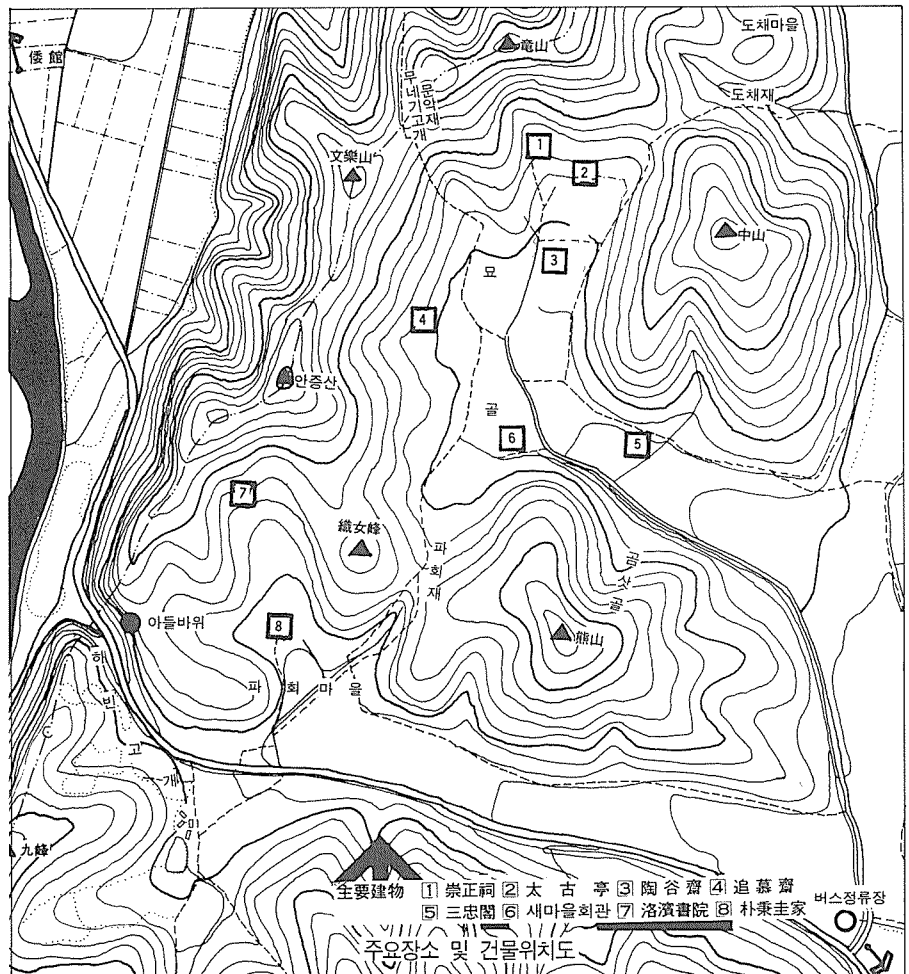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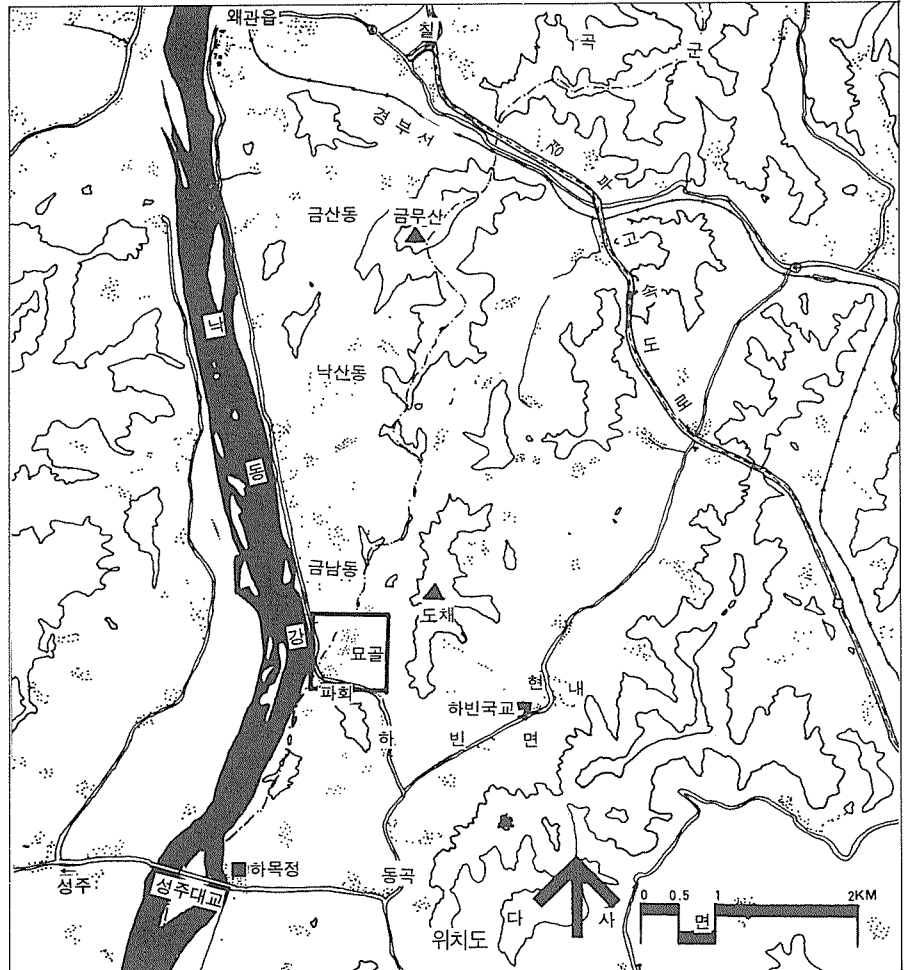
朴光輔 : 1761~1839, 호는 錦西軒, 영남의 큰 선비로 칭송됨.

朴光錫 : 1764~1845, 호는 老甫, 금서현의 동생, 漢城府右尹 등 많은 벼슬을 했으나 청백리로서 칭송받았다. 묘골에서 朴會로 분가하여 朴會의 박씨 입향조가 된다.

朴奎鉉 : 巴山書堂(하엽정)을 지음.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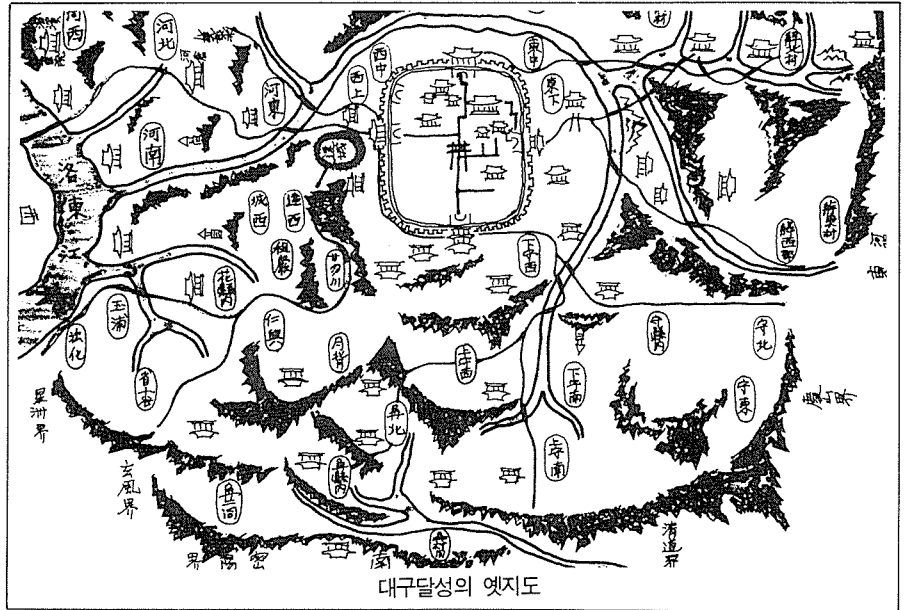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984년도판 1 : 500,000지형도(도엽번호 NI 52-2-03 왜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재축소하였다. 굵은 실선으로 된 정사각형 부분은 사망 1km범위로



묘동을 구성하는 세 마을인 파회·묘골·도채의 영역을 나타낸다. 묘동은 왜관-동곡간을 잇는 907번 지방도로상에 위치하여, 왜관으로부터 12km지점에 위치한다. 4km남방인 동곡에서 상주-대구간의 986번 지방도와 접속되며 이 도로망을 따라 대구로부터 20km, 상주로부터 15km의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면소재지이며 국민학교가 있는 현대까지는 4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이 도면은 국립지리원 발행(1980년 편집) 1:5,000지형도에서 발췌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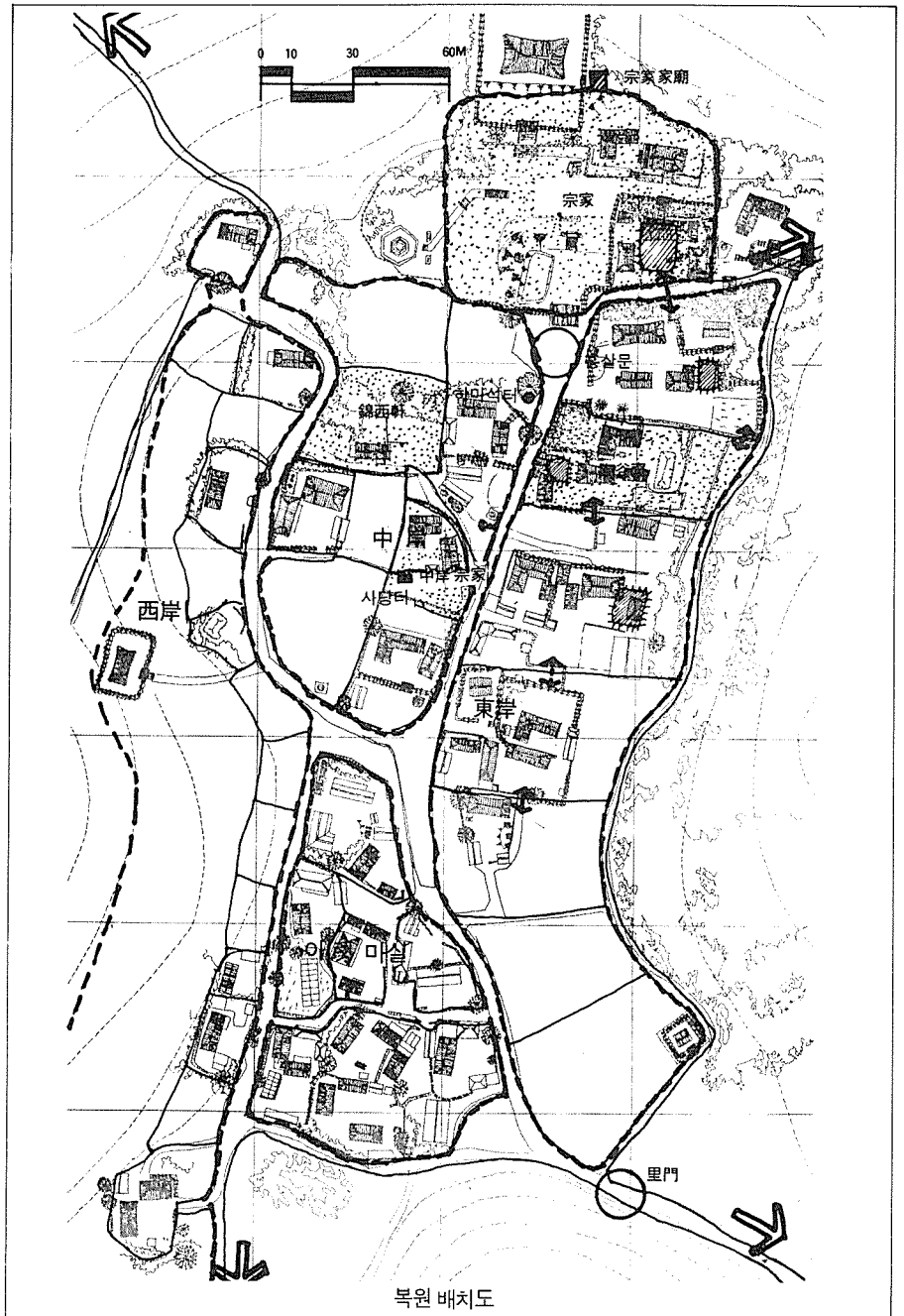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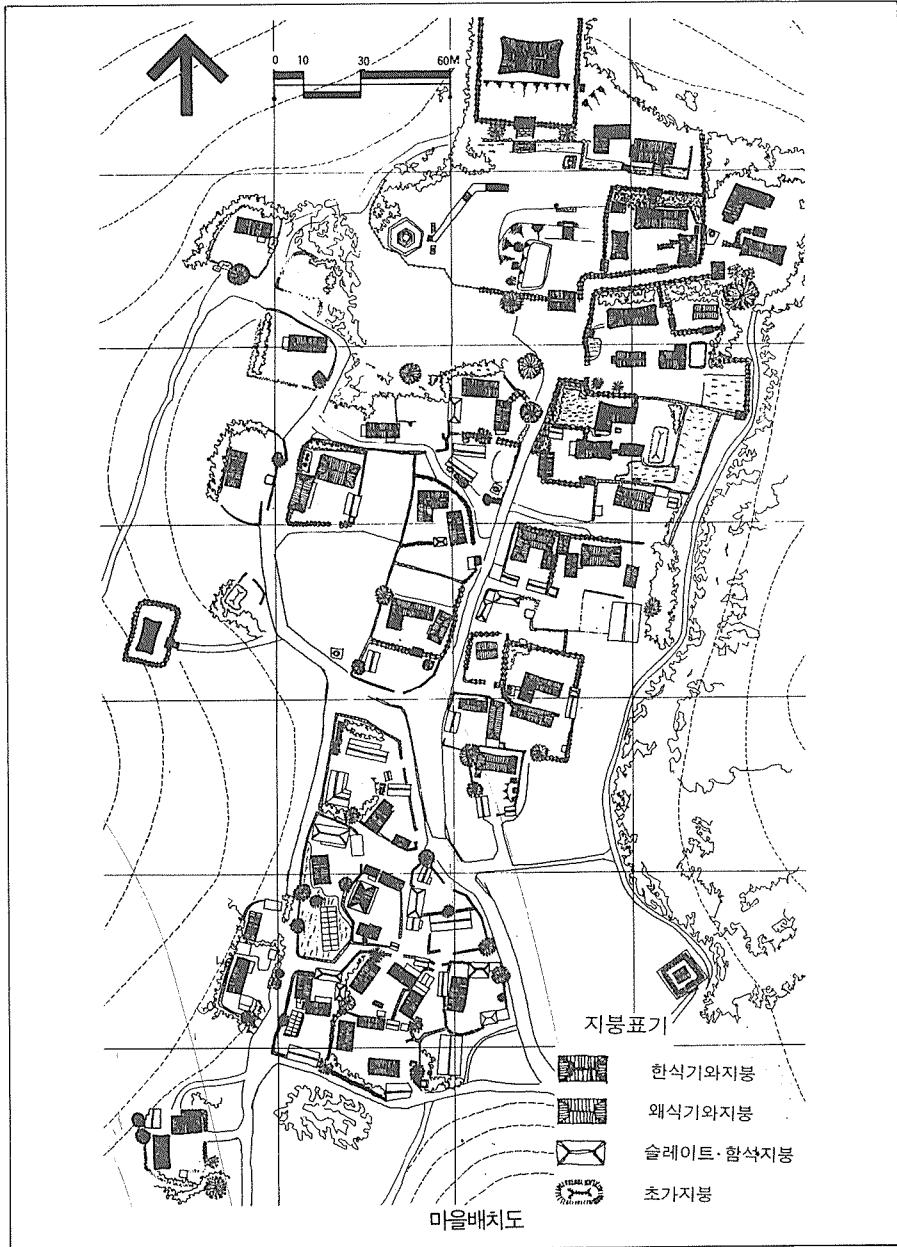
□ 대구·당성의 옛지도

여기에 실린 지도는 조선조 순조 말기(1830년경) 경상감사인 朴岐壽가 제작하여 嶺南輿誌에 수록된 것을 筆寫한 達城·大邱古圖이다. 대구도호부를 중심으로 성주·현풍·밀양·청도·경산·하양·영천·신령과 경계를 맞대며 이루어진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속현중 하서·하북·하남·하동의 4方面이 하빈현을 이루며 현재의 하빈면은 이중 하서·하북면에 해당한다. 묘동의 위치는 대구·달성권에서도 가장 변방에 자리하여, 많은 씨족마을과 마찬가지로 관청의 영향이 크게 작용되지 못한 채 독자적인 양반촌으로 성장해 왔다.

□ 복원배치도

한국의 많은 농촌 마을들이 그러하듯이 묘골도 일제기 이후 많은 변형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마을의 원형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선조말기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의 복원적 배치도는 宗家가 없어지기 이전인 1850년대의 구조를 가능한 범위까지 추정해 본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집터들을 기초로 각종 문헌과 村老들의 고증을 참고로 작성했다. 전체 마을은 종가집을 머리로 하여 東·中·西岸으로 이루어지며, 소작인 집단인 아랫마실이 존재한다. 각 영역의 경계는 도로로 소위





四大門이라 일컫는 고갯길들이다. 東岸의 집들은 長孫系이므로 집의 규모도 크고 제법 班家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추정되며, 각 집에 모두 蓮塘을 판고, 아래 윗집 사이에 편문이 설치돼 내부적인 통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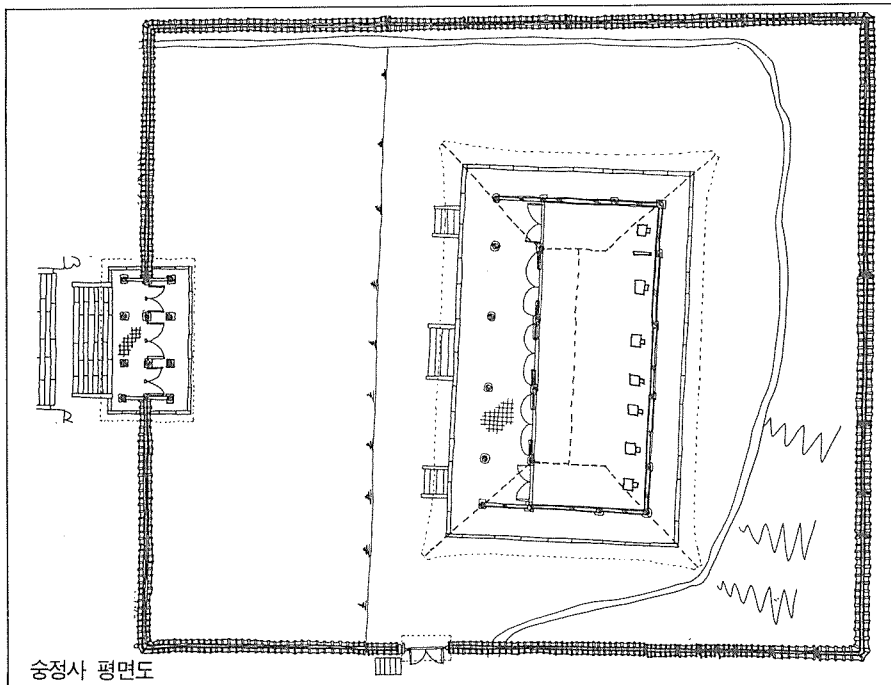
中岸의 집들은 전형적인 富農家였다고 생각되며 집의 규모도 東岸에 비해 작다. 지금은 없어진 錦西軒이 中岸의 小宗家였으며, 파회마을의 박 병규 가옥도 이 계열에서 分家한 집이다. 西岸의 집들은 小農層의 집들로서 대개 살림채 한 동 정도만을 가진 소규모의 민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단도 順天朴氏의 門中이어서 소작인 집단인 아랫마을과는 구별이 뚜렷했다. 마을 어귀에는 里門이, 종가 앞에는 홍살문이 설치돼 유서있는 班村임을 상징했었다. 19세기 중엽의 총호수는 대략 60~80여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마을 배치도(현황)

1/1,200지적도(일제시대 작성)를 바탕으로 1/6000 정밀측량을 하여 도로와 각 집의 경계를 표시한 뒤, 각 집을 1/100실측하여 각 도각평면을 완성했다. 각 도각을 사진축소하여 조합하여 마을 배치도를 완성했고 주거 평면 대신 지붕평면도를 표기했다.

□ 승정사(崇正祠)

건립연대 1974년
구조 R·C 조, 다포계 모사
재료 콘크리트위 단청칠
1971년부터 묘골에 일기 시작한 死六臣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태고정·삼층각·낙빈서원등이 중수됐으며, 그 마지막 사업이 바로 승정사의 건립이었다.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정화 추모사업과 발맞추어 진행된 이 사업의 결과 묘골내 주도로가 1차선 폭으로 정비돼 콘크리트 포장이 됐으며 구중가터의 뒷산 경사지를 깎아 웅대한 이 사묘건물이 세워졌다. 건물내에는 六臣의 위패와 박팽년의 부친인 대제학 仲林선생의 위패가 별도로 봉향돼 총 7위의 위패가 있다. 따라서



사당의 이름을 六臣祠로 하지 못하고 崇正祠로 하게 됐다. 서남쪽 언덕 위에 육각형으로 된 돌거북비가 세워져 六臣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다. 콘크리트조로 다포계 목조건축을 모사했으나 칸 넓이와 높이의 스케일은 목조건축 고유의 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크다. 내부에 마루를 깔고 7위패를 봉안했다. 전면 퇴만 개방되고 3면은 막힌 감실형 평면으로 전통적인 사당건물의 평면 유형이다. 그러나 겹처마 팔작지붕을 갖음으로써 박공지붕이 일반적인 사묘건축의 경건성이 감소된 것이 아쉽다. 그 규모로 보아 향교의 大成殿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으면 더욱 좋을 뻔했다. 주변에 축대·계게단·담장등을 정비하고 잔디를 깔았으나 주변마을 가옥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마을의 역사성과 세월이 이룩한 건축 환경에 부합하는 계획이 아쉽다. 또한 무리하게 석비례층을 깎아 내려 지하수의 맥을 노출시켜 대지 전체를 음습하게 한 것도 고려됐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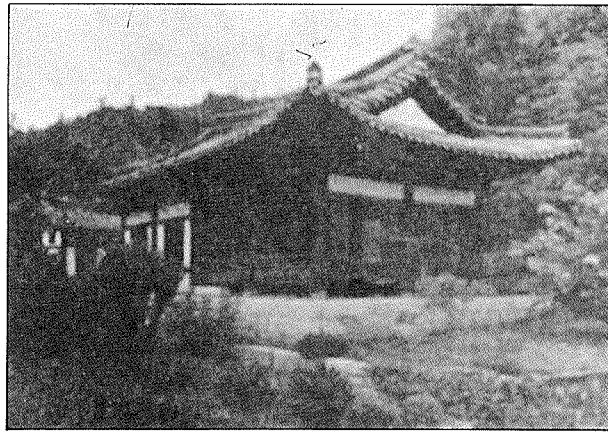
□태고정(太古亭)

건립연대 안채 18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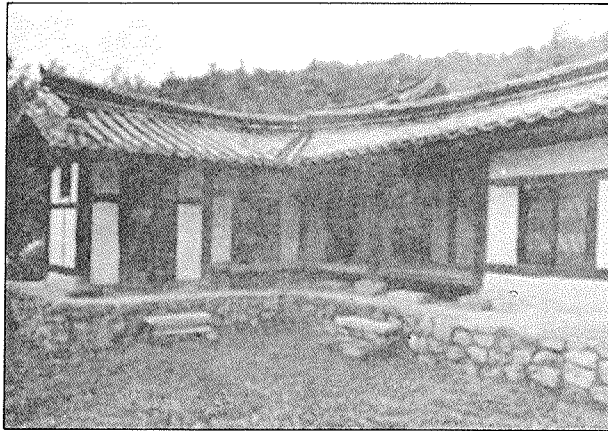
정자 1750년대

구 조 목조·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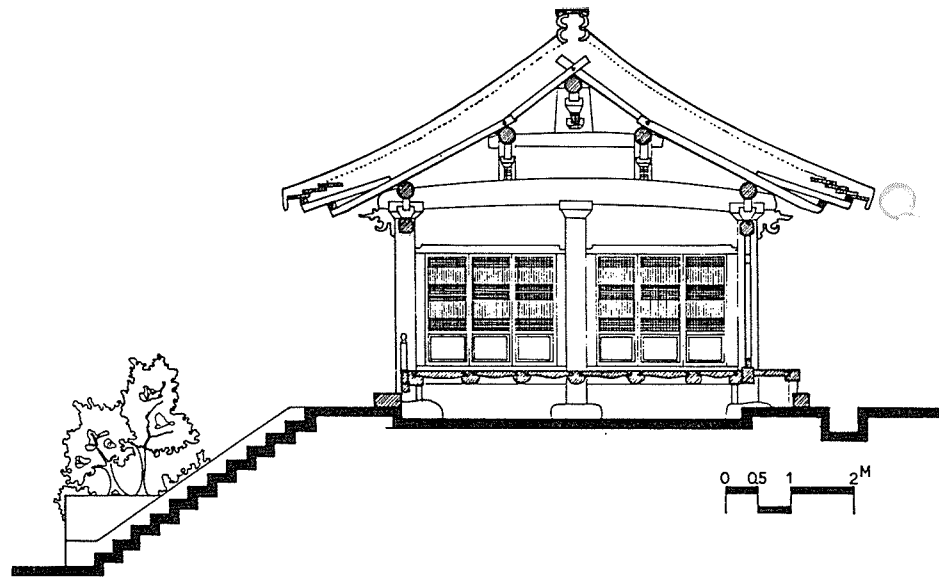
보물 554호 지정된 조선 중기의 귀중한 정자 건물이다. 순천 박씨가 입향하여 현재의 태고정과가 승정사 일대에 宗宅을 지어 그 규모가 99칸에 이르렀다 한다. 그때 종택에 있던 정자를 舊亭이라 부르고 태고정은 임진난 이후에 세워진 新亭을 이른다. 임진왜란때 종택 모두가 불타 사당만 남게 됐으며 난후에 종택을 재건했는데, 이때 종택 동편에 세운 정자가 태고정이다. 종택은 18세기 말 중손이 충주로 이주한 후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문중의 무관심으로 소멸되고 말았으나 太古亭記에 종택의 규모와 모습이 꽤 자세히 묘사돼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 승정사의 정문인 삼문 자리 남쪽에 홍살문이 세워졌고 下馬碑가 있어 절도사 이하의 신분은 모두 걸어들어와야 했다. 집 전체는 興字型으로 배치돼 16칸의 안채·4칸인 2층



태고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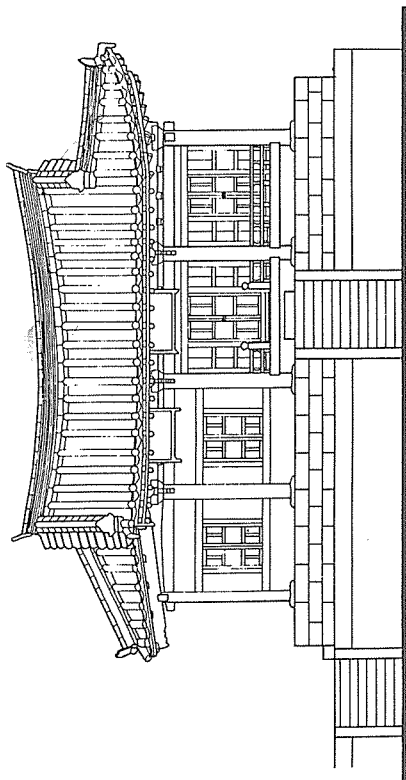


태고정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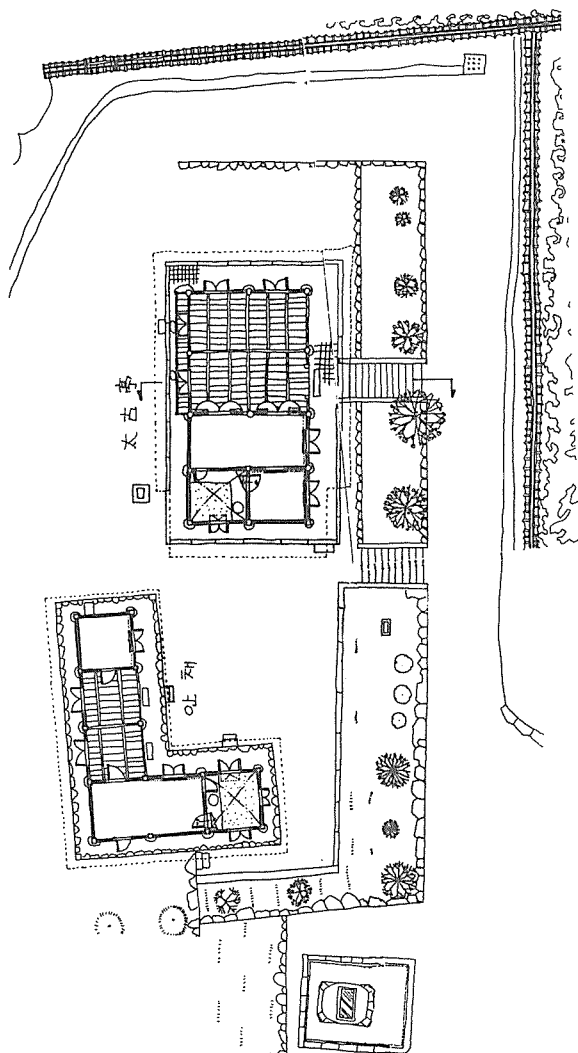


태고정 단면도

태고정 안채



태고정 배치도



점화루·6칸의 정자(태고정). 정자에
부속된 3칸 복도·3칸의
2층각(부엌용도)·9칸의 창고·10칸의
2층루각(피서용)·3칸 방(문서·약재
보관)·26칸의 긴 행랑채·6칸의 2층
곡랑(매방)·13칸의 곡간 총 99칸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태고정과 ㄱ자 안채가
남아있다. 안채는 종택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택 철거 후 이 터에
10여호의 살림집이 있었다 한다. 그 중
한 채로 추정되며 송정사 건립 후
봄·가을 제사때 숙소로 쓰는 등
관리사의 성격이다. 따라서 태고정과
유기적 관계도 없고 거주인도 없다.
그러나 묘골에 있는 여러 ㄱ자 안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청의
대들보는 활모양으로 흰 것이 3칸에
걸쳐 있다. 부엌 위에 다락을 두었고
어골 천장을 꾸몄다.

태고정은 원래 2×3칸의
6칸이었으나 서쪽 2칸인 방과 부엌은
후에 첨가된 것이다. 지붕 모양도
대청쪽은 팔작 지붕, 방 부분은
박공지붕에, 확장된 부분은 다시
부십지붕이다. 한 집의 지붕이 이처럼
다른 것은 살림집에 딸린 정자건물에
종종 나타나, 월성 독립당의 지붕에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박공지붕쪽에 안채와 연결되도록
일반적으로 복도등을 부설한다. 부연을
단 겹처마에 날카롭게 조각된
초익공집이다. 원래 부분은 원플,
첨가된 부분은 각주를 썼고 대청 양
귀퉁이 추녀부분은 선자서까래를
달았다. 합각부분의 천장은 층량 위에
우물반자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연등
천장이다. 대공은 사다리꼴 판 위에
포를 얹은 복합대공이다.
방 앞에는 「太古亭」, 대청 앞엔
「一是樓」의 현판이 걸려 있고, 대청
안에 題名錄·明나라 장수의
詩文·重修記등의 현액이 걸려 있다.

(다음호에 계속)

연구진

자문위원 : 임충신, 성인수, 김선범,
유호천, 최 일, 강석봉

연구원 : 이규성, 강규환, 김봉렬